

상하이시절의 이광수와 사회주의

— 역술 「아라사혁명기」(1920)를 중심으로

崔珠瀚*

- | | |
|---------------------------------|------------------------------|
| I. 러시아혁명에 대한 최초의 소개글 | III. 저본의 성격 및 역술 양상 검토 |
| II. 3·1운동 직후 상하이의 사상계와 「아라사혁명기」 | IV. 사회주의혁명에 건 기대와 좌절, 그리고 선회 |

• 국문초록

1920년 초 『독립신문』에 연재된 ‘天才’의 「아라사혁명기」는 러시아혁명에 관한 최초의 소개글로서 후세 카츠지(布施勝治)의 『露國革命記』(1918)를 저본으로 하여 역술한 것이다. 이 글은 3·1운동 직후 당대 세계개조의 향방을 가늠하며 독립운동의 방침을 모색했던 상하이 사상계의 실천적 관심이라는 맥락에서 「아라사혁명기」의 배경에 주목하는 한편, 저본인 『로국혁명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아라사혁명기」의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로국혁명기』의 저자에게 러시아혁명이 제국주의와 자본계급에 맞서 세계적 혁명을 주도하며 당대 떠오르는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였던 일본을 안팎으로 위협하는 철저한 경계의 대상이었던 반면,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필자에게 그것은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약속하는 독립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건설을 약속하는 인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 글은 상하이시절 이광수의 집필 활동에서 역술 「아라사혁명기」 전후 논지의 연속성, 연재 집필의 능숙함과 표현의 정형성, 동일한 필자의 글에 보이는 논조의 급변을 근거로 ‘天才’를 이광수로 추정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주제어 : 상하이시절의 이광수, 사회주의, 러시아혁명, 「아라사혁명기」, 『로국혁명기』, 天才

I. 러시아혁명에 관한 최초의 소개글

역술 「아라사혁명기」는 1920년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11회에 걸쳐 『독립신문』에 연재된 러시아혁명에 관한 본격적인 소개글이다. 후세 카츠지(布施勝治)의 『露國革命記』(文雅堂, 1918)를 저본으로 하여 발췌역과 요약서술을 병행한 것으로, 무려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저본의 압도적인 분량을 압축하여 요령 있게 서술하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로국혁명기』는 1912년 봄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 유학 길에 올랐던 후세 카츠지가 오사카마이니치와 도쿄니치니치 신문의 대표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변동을 직접 취재하며 집필한 통신 원고를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¹⁾ 기자로서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는 물론 당대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꿰뚫는 안목까지 겸비하여 사건을 서술해내고 있는 터라 일본 내에서 간행된 러시아혁명에 관한 소개글로서도 빠른 족에 속한다.

「아라사혁명기」는 1920년 1월 10일부터 연재가 시작되었지만 이 글의 집필이 끝난 시기는 19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재 마지막회분의 말미에 “今年은 勞農政府下에 있는 俄國은 大豊年을 만났다 한다”²⁾라는 구절이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상하이의 사상계는 이미 1919년 중반 이후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고 역술 「아라사혁명기」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 한가운데서 기획되고 연재되었다. 대폭 축약된 형태의 역술이기는 해도 원저 『로국혁명기』의 무게와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연재는 이 무렵 상하이의 사상계에서 러시아혁명에 대한 인식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존재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최근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계보를 검토한 최은혜는 『독립신문』 소재 러시아혁명 및 사회주의 관련 기사를 검토하면서 민족자결주의의 분기점에 놓인 글로서 「아라사혁명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수용의 前史로서 소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아라사혁명기」를 비롯한 『독립신문』의 ‘볼셰비키 친화성’에 대해 논평하면서 레닌의 민족자결주의를 직접

1) 「陳言」(1918.10), 布施勝治, 『露國革命記』, 文雅堂, 1918, 1~2면.

2) 天才 譯述, 「아라사혁명기」(一一), 『독립신문』, 1920.2.26.

수용한 결과는 아니라거나 세계혁명적 구상을 견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³⁾ 논평과 달리 「아라사혁명기」만 해도 러시아혁명에 내재한 사회주의적 계급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에 두루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의 분기점이 되었던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강화회담의 성과를 볼셰비키 정부가 제안한 민족자결 및 비합병·비배상주의의 승리로 축하하고 이를 세계 각국의 노동계급과 더불어 ‘세계적 사회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글이다.

선행 연구에서 「아라사혁명기」가 레닌의 민족자결주의 수용의 前史로서 소략하게 다루어진 탓인지 김현주와 카케모토 츠요시의 후속 공동연구에서도 러시아혁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소개글로 주목되는 것은 1921년 6월 3일부터 61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이다. 이들 연구는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형성을 검토한 최은혜의 논문을 언급하면서 “「레닌」은 그 첫발자국에 해당”된다고 하여 「레닌」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⁴⁾ 논자들이 적절히 짚고 있듯 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는 러시아의 근대사와 혁명운동의 전개, 1905년 이후 러시아 국내혁명운동의 경과, 그리고 1917년 혁명과 혁명 이후 정책으로 구현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모습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1920년대 초 조선의 공론장에서 러시아혁명과 볼셰비즘을 논제로 삼기 시작하던 당시의 문제의식과 인식을 살피는 데 적합한 텍스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주의 수용사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계보를 논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역시 역술 「아라사혁명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후세 카츠지의 『로국혁명기』는 러시아혁명에 대한 당대적 서술로서 상당한 깊이와 무게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라사혁명」은 이 저본에 의지하여 러시아혁명의 추이와 성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포착하는 한편 러시아혁명에 성격과 전망에 있어서 원저와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3) 최은혜, 「민족과 혁명: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77, 민족문화사학회, 2021, 334~335면, 338면.

4) 김현주·카케모토 츠요시, 「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0,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22, 136면.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두 텍스트가 집필된 시기가 1년여 격차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데, 1918년 3월 볼셰비키 정부의 모스크바 천도 직후의 시점에서 끝맺고 있는 『로국혁명기』와 1919년 말의 시점에서 역술된 「아라사혁명기」 사이에는 1918년 11월 독일혁명과 1차 세계대전의 종전, 1919년 6월 베르사유조약의 성립, 그리고 내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볼셰비키 정권의 약진이라는 러시아 국내외 정세의 변동이 가로놓여 있다. 「아라사혁명기」는 『로국혁명기』의 언론 지형은 물론 1920년대 초 주로 일본에서 수입된 담론에 의지했던 조선의 공론장과도 달리, 전후 세계개조의 향방 속에서 독립운동의 방침을 수립해야 했던 상하이 사상계의 실천적 관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문제의식 속에 놓인 텍스트로서 독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선 3·1운동 직후 파리강화회의를 기점으로 분기되기 시작하는 상하이 사상계의 동향과 더불어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배경에 주목하고, 다음으로 저본인 『로국혁명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아라사혁명기」의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당대 세계개조의 향방 속에서 독립운동의 방침을 가늠하던 식민지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혁명에 걸었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도출해내고, 아울러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필자 ‘天才’가 이광수라는 사실을 좀더 분명히 해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⁵⁾

II. 3·1운동 직후 상하이의 사상계와 「아라사혁명기」

주지하다시피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질서의 변동을 주도하고 있던 것은 국제연맹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협조주의와 코민테른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연대주의라는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주의였다. 이 가운데 3·1운동은 월슨의 14개조에 기반한 국제협조주의에 대한 기대에 힘입은 측면이 컸고, 3·1운동 직후 선전과 외교에 중점을 두었던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역시 국제협조주의를 내건 국제연맹에 많은 기

5) 『독립신문』에 ‘天才’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글로는 역술 「아라사혁명기」(1920.1.10.~2.26) 외에 논설 「독립군승첩」(1920.2.17.), 「국민개업」(1921.4.2.) 등 모두 세 편이 있다. 최주한은 이 세 편의 글의 문체와 내용을 검토하여 ‘天才’가 이광수라는 사실을 특정한 바 있다. 최주한, 『『독립신문』 소재 이광수 논설의 재검토』,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학회, 2019, 242~248면.

대를 걸고 있었다. 상하이에는 물론 러시아와 미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문제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촉박한 시간을 다투어 『조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한 것은 그 기대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당시 사료편찬의 주임을 맡았던 이광수는 사료집의 「서언」에서 이렇게 적었다. “巴里講和會議에 訴하야 敗하든 吾等은 更히 今次의 國際聯盟에 訴하야야 할지라. 吾等の 所願은 九月內에 此原稿을 世界公義의 士의 一覽에 供하러 肅히니, 如斯히 呼라면 遲하야도 九月 一日前에 上海에서 發送하야야 할지니, 本書 編纂期는 겨우 五十日 이라.”⁶⁾ 「서언」의 집필일은 8월 20일, 이후 필경작업을 거쳐 사료집을 등사하여 편찬을 마친 것은 9월 23일이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독립의 유일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광수는 『독립신문』의 사설을 통해 정부가 외교뿐 아니라 군사에도 진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준비를 기하고 때를 기다릴 것을 강조한 바 있다. “政府에서는 無能한 外交만 坐信하고 있다 하나 事實은 그렇지 안을지라. 吾儕의 其知하는 바와 如히 一便으로 無能한 外交이나마 續繼하며 全力은 軍事에 總注集하는 必라.”⁷⁾ 이 무렵 이광수는 국제연맹이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한 축에 불과할 뿐이고 그나마 세계열강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후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신사상, 특히 러시아혁명을 진원지로 하는 사회주의가 세계 각국에 미치는 여파를 주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신한청년』의 주필로서 창간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집필한 논설 「한족의 장래」(1919.10.27. 집필)에서는 국제연맹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몰고 온 세계질서의 변동을 독립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로서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或 나의 넘어 弱함과 敵의 넘어 強함을 근심하리라. 或 國際聯盟의 確實히 및
지 못할 것을 근심하리라. 그러나 世界는 動한다. 맞치 汽車와 맞치 彗星과 맞
치 動하야 그 局面의 迅速 不可測한 變化를 니로 端睨할 슈 업시 變한다. 뉘라서

6) 이광수, 「緒言」(1919.8.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7 한일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3면.

7) 「전쟁의 시기」, 『독립』 15, 1919.9.30. 창간 당시의 제호는 『독립』이며 22호부터 표제가 『독립신문』으로 바뀐다. 본론에서는 『독립신문』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俄國이나 德國의 明日를 想像하였스라. 各種의 新思想의 風潮가 暴風雨와 갓치 狂瀾怒濤와 갓치 山을 削고 바위를 부수는 이 판에 敵의 強이 몇 날이라. 하물며 俄가 가고 德이 가고 過去時代의 遺物인 專制主義, 帝國主義의 國家로 殘喘을 僅保하는 것이 오직 日本 하나이니, 政治的 革命은 勿論이요 勞動者 革命, 過激派主義의 支配가 日本에 臨할 날이 그 몇 날이라. 또 太平洋問題, 中國問題로 美日 交戰이 起할 날이 그 몇 날이라. 如上한 것은 現在에서 볼 수 있난 點만이나, 來月에 엇더한 機會가 올는지 明日에 엇더한 新局面이 展開될는지 誰가 알나. 우리 眼前에는 無限의 機會가 밀려오나니, 맞치 聖經의 敎訓과 갓치 各各 燈油를 豫備하였다가 不時에 來臨할 新郎을 마자야 할 것이다.⁸⁾

사실 폭풍과 같은 기세로 일거에 전제주의와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며 세계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던 사회주의의 동향에 대한 관심은 이 무렵 상하이 사상계의 지배적인 경향이기도 했다. 이광수가 이 글을 발표한 신한청년당의 기관지 『신한청년』만 해도 창간호는 독립운동사료로 채워졌지만, 이듬해 2월에 간행된 2호는 독일의 혁명가 립크네히트의 일생을 소개한 「혁명의 産兒」(大載), 러시아혁명 이후 적지 않은 감화를 전세계에 미치고 있는 볼셰비키의 실상과 그 영향을 논하고 있는 「과격파의 진상」(松萼),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을 비교하여 혁명의 성격과 필연성을 논하며 러시아혁명을 이끈 소비에트 체제를 영구히 존속할 세계의 대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혁명의 심리철학」(鷺尾五正郎) 등 사회주의에 호의적인 소개의 글이 여러 편 실렸다. 한편 1920년 2월 8일 동경학우독립선언기념회식에서 발기되어 조직된 동경 유학생 중심의 학우구락부는 매월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는데, 3월 6일에 열린 제1회 공개강연회에서는 이광수가 「볼셰비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고,⁹⁾ 5월 5일 제2회 강연회에서는 메이지대학 법학과 출신인 손두환이 「사회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¹⁰⁾ 제1회 강연부터 매회 사회주의가 연제로 오를 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광수가 「한족의 장래」를 집필하며 독립운동의 향방을 가늠하고 있던 무렵은 9월 통합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명실상부한 조직체계를 갖춘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8) 春公 李長白, 「한족의 장래」(1919.10.27. 집필), 『신한청년』 창간호, 1919.12, 121면.

9) 「留日學友俱樂部의 제1회 강연」, 『독립신문』 55, 1920.2.18.

10) 「제2회 강연」, 『독립신문』 62, 1920.4.8.

의 방침을 세우기 위해 한창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선 시기이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내세운 좌우합작의 내각이었으니 필요한 절차였을 것이다. 이광수의 회고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여 임시정부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로 하고 한 달의 기한을 정하였으나 두 번이나 연기되어 약 이십 통의 의견서가 모인 것이 12월 초, 이광수의 보좌로 안창호의 책임하에 마련된 독립운동방략은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다.¹¹⁾ 이윽고 1920년 벽두 ‘戰爭의 年’이 선포되고 독립운동방략의 대강은 1월 3일 안창호의 연설 「우리 國民이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를 통해 공표되는데, 임시정부가 외교에서 전쟁으로 독립운동의 방침을 전환한 근거의 핵심에 놓인 것 역시 세계의 정세였다. 안창호는 전쟁에 하나라도 더 내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외교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今後의 世界의 大勢는 社會主義的으로 傾向할지오 決코 軍國主義的으로 逆進하지 아니”¹²⁾할 것이므로 세계정세의 변동을 잘 살펴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설파했다. 세계의 대세가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는 좌우의 이견이 없었던 셈이다.

이후 『독립신문』에는 역술 「아라사혁명기」(1920.1.10.~2.26)를 비롯하여 「俄國의 신국면」(1920.2.3.), 「사회주의」(1920.3.13.~4.10), 「노동공화국 각방면 관찰」(1920.4.10.~17), 「일본기자의 본 노동공화국」(1920.4.27.~6.22), 「사회주의자의 한일전쟁관」(1920.5.22.), 「사회주의연구」(1920.5.29.~6.17) 등 러시아혁명과 혁명 이후 러시아 안팎의 정세 및 사회주의 연구 관련 기사들이 잇달아 연재된다. 기사에 언급된 정보처만 해도 미국인 주재의 영자신문 『大陸報(The China Press)』에서부터 『解放與改造』, 『大阪毎日新報』 등 중국과 일본을 두루 아우르고 있어 다각적인 각도에서 러시아발 사회주의의 실상에 접근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 점에서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기획 집필은 3·1운동 직후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상하이 사상계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살펴본 대로 『독립신문』의 주필이자 『신한청년』의 주필로서 상하이의 동경유학생

11) 이광수, 『나의 고백』(1948),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259면. 이광수는 이 독립운동방략이 신년의 첫 국무원회의에 제출될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으나, 『독립신문』 1920년 1월 17일자 사설 「전쟁의 年」에는 “元年末에 大政方針의 具體案이 國務會議을 通過하였다 함”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12) 안창호, 「우리 國民이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二)」, 『독립신문』, 1920.1.10.

학우구락부의 간부이기도 했던 이광수는 당대 상하이 사상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역시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몰고 온 세계질서의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광수가 국제연맹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질서 변동의 진원지로 떠오른 러시아혁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후 이광수는 「세계적 사명을 受한 我族의 전도는 광명이니라」(2.12), 「일본의 현세」(3.11~4.1), 「미일전쟁」(3.20), 「세계대전이 오리라」(3.23), 「독립전쟁의 시기」(4.1), 「한중제휴의 要」(4.17), 「해삼위사건」(4.20) 등 러시아발 사회혁명이 동아시아 정국에 일으킬 지각변동, 특히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일본의 혁명 가능성을 주시하며 독립전쟁의 기회를 모색한 글을 집중적으로 써냈다. 역술 「아라사혁명기」 전후 이러한 논지의 연속성이 ‘天才’를 이광수로 추정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Ⅲ. 저본의 성격 및 역술 양상 검토

『로국혁명기』(1918)는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유학생이던 후세 카츠지(布地勝治)가 오사카마이니치 및 도쿄니치니치 신문 대표의 자격으로 1917년 러시아혁명 전후 1년간 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변동을 직접 취재하여 쓴 통신 원고 약 510여 편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1912년 봄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사장 모토야마 켄이치(本山彦一)의 추천으로 유학길에 오른 이래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정치 및 사회변동을 목도한 장본인으로서 현장에서 취재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생생한 현장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제정 러시아가 의회정치를 거쳐 러시아혁명으로 소비에트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도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러시아 근대정치사의 흐름을 일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애쓴 흔적도 역력하다. 그렇다면 러시아혁명 전후 1년간 통신기자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난 후세 카츠지가 굳이 원고를 정리하여 『로국혁명기』의 간행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로국혁명기』의 간행을 앞두고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사장 모토야마에게 올린 「陳言」 가운데 다음의 대목은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생각건대 러시아의 혁명은 로마노프 왕조 3백년 이래의 적폐와 구주대전 3년간의 피로로 인해 산출된 당연한 결과이고, 게다가 금후 세계에 미칠 영향에 이르러서는 거의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의 혁명은 러시아 일국의 내적 변란에 그치지 않고, 혁명의 원동력인 사회주의는 머리를 들어 장차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를 향해 대항코자 하며, 그것이 표방하는 비병합·비배상 및 민족자결주의, 또 사회적 혁명과 같이 어느 것이나 세계적 파동의 발단 아님이 없고, 러시아혁명으로써 강 건너 언덕의 화재를 보지 않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실로 러시아의 혁명은 그 정국 파란의 변전이 끝없다는 점에서 정치가를 위해, 그 군기문란·사기퇴폐의 점에서 군인을 위해, 그 역사적 사실로서 흥미 깊은 점에서 역사가를 위해, 경제계 파괴 난맥의 점에서 실업가를 위해, 거의 각 방면에 서로 좋은 연구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없다.¹³⁾

러시아혁명이 금후 세계에 미칠 영향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 열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던 일본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그것이 표방하는 “비병합·비배상 및 민족자결주의”와 “사회적 혁명”은 일본이 통치하는 식민지는 물론 일본 사회 내부를 자극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였고, 그런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저자가 ‘정국 파란의 변전’ ‘군기문란·사기퇴폐’ ‘경제계 파괴 난맥’ 등 혁명의 원동력인 사회주의가 제국주의 일본 안팎의 각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식민지 조선이 바라보는 러시아혁명, 더욱이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상하이의 사상계가 러시아혁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식민통치국 일본과 상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역술 「아라사혁명기」가 『로국혁명기』를 저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¹⁴⁾ 러시아혁명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과 전망을 보여주는

13) 布施勝治, 「陳言」(1918, 10), 『露國革命記』, 文雅堂, 1918, 2~3면.

14) 번역 저본에 관해서는 제목이 바뀐 것을 근거로 중국어 번역본을 재번역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김미지, 「접경의 도시 상해와 ‘상하이 네트워크’」,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54면),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한 저서 『로국혁명기』의 발행일은 1918년 11월 25일이고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집필이 끝난 시점은 1919년 말이므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 「아라사혁명기」의 인명과 지명이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 카타카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라사’는 대한제국 이래 당대까지 조선에서 러시아를 가리키던 의례적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일차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두 텍스트가 러시아혁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랐을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역술 「아라사혁명기」와 『로국혁명기』의 장 구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역술 저본과의 장 구성 비교

연재	俄羅斯革命記	露國革命記
1	一, 革命的 豫兆	第一 차르스코예셀로궁편 저주받은 니콜라이 2세/황제내각/빈번한 대신교체/모순된 정책/암흑세력/혁명전의 정국/패전의 여파/혁명의 豫兆
2		
3	二, 革命的 洪水 국민회의의 집정/제1회 노병대회/임시정부 수립/俄皇 퇴위	第二 타우리드궁편 혁명의 소란/국민회의 중지 칙령/집행위원회 조직/노병회의의 성립/노병회의의 격문/관료정부의 전복/황족의 혁명찬동/신정부의 수립/니콜라이 2세의 양위/미하일공의 즉위 사퇴
4	누락	第三 마리궁편 임시정부의 조직/임시정부의 인물
5	三, 두 가지 潮流(續) 노병회의의 활약/국체문제/和戰문제/임시정부의 불철저	노병회의의 세력/국체문제/和戰論/위태한 정국/ 사회당의 발호/ 임시정부와 사회당의 충돌
6	四, 資本級의 衰運 오월혁명/연립내각/급전하여가는 혁명의 중심	오월소란/사회당의 내홍/국력의 부진/연립내각의 성립/신내각의 인물/국제위기의 완화/비병합 · 비배상주의/민족자결주의/혁명의 침잠(노병대회)/(노병회의의 시위)/러시아군의 공세전이/공격의 비관/주의의 급 전환
7	五, 穩和社會黨 노병대회/시위운동/갈리시아 패전/칠월혁명/케렌스키 시대/모스크 회의/리가 패전/코르닐로프의 변/케씨의 쇠운	노병대회/노병회의의 시위 第四 겨울궁편 칠월소란/제1차 케렌스키 내각의 성립/갈리시아 대패/러시아군의 패인/케렌스키 내각의 동요/제2차 케렌스키 내각/케렌스키씨/케렌스키 내각의 위기/모스크바 회의/파탄 백출/리가 패전/코르닐로프 사변/ 과격파의 대두/五頭 내각/ 사회당의 주장
8		

생각된다.

9	六, 第二革命 대행의회의 희극/십일월혁명/쏘비에트 정부 성립	민중대회/제3차 케렌스키 내각/케렌스키의 퇴세/대행 회의/내정의 문란/영국·프랑스에 대한 반감/모스크 바 천도설/케렌스키의 몰락 第五 스몰니편 십일월혁명/노동정부의 수립/케렌스키 재기의 실패/ 정국의 혼란
10	七, 볼셰비키와 레닌氏 及 其施政 제2혁명의 의의/혁명의 기세/주의의 人/ 헌법회의의 파기/제4계급의 집정	볼셰비키/레닌씨/과격파의 施政/헌법회의의 유린/勞農 專制
11	八, 破壞에서 建設로 강화교섭/모스크바 천도/德國革命/세계 적 사회혁명	후진교섭/강화교섭/세계적 사회혁명/交戰 정지선언/ 독일의 進攻/최근의 과격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국혁명기』는 차르스코예 셀로궁편 타우리드궁편, 마리궁(마린스키궁)편, 겨울궁편, 수몰니편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다섯 편이 가리키고 있는 건물은 러시아 혁명 1년간 변전을 거듭했던 러시아 정권의 근거지로, 「서언」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가 러시아혁명을 서술하면서 이 다섯 편을 축으로 삼은 것은 “정권 본거지의 변경이 저절로 혁명 변국의 구획”¹⁵⁾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알렉산드라 황후가 일국 정권을 좌우하면서 전제정의 종말을 재촉했던 차르스코예 셀로궁, 1905년 니콜라이 2세의 10월 선언으로 개설되어 2월 혁명과 더불어 일시 정국을 주도했던 국민의회 의사당 타우리드궁, 임시정부의 성립 이후 사회당과의 연립내각으로 정권의 본거지가 된 마리궁, 연립내각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케렌스키 내각이 본거지로 삼은 겨울궁, 그리고 10월 혁명과 더불어 성립한 볼셰비키정권이 근거지로 삼은 옛 귀족여학원 스몰니가 러시아혁명의 변국을 지켜본 주인공인 셈이다.

한편 역술 「아라사혁명기」는 한편으로 『로국혁명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추이를 따르면서도 혁명의 조짐에서 혁명의 발발, 혁명 발발 이후 혁명 세력 내부의 갈등, 그리고 소비에트정부의 성립 및 혁명정부의 현재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러시아혁명의 추이와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15) 布施勝治, 「緒言」(1918.10), 앞의 책, 3면.

특징적이다. 특히 2월 혁명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와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당과의 갈등 및 볼셰비키 정부의 성립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는 『로국혁명기』의 소재목과 달리, 「아라사혁명기」의 경우 자본계급과 친화적인 임시정부와 온화사회당에 기반한 케렌스키 내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한편 소비에트 세력을 혁명의 중심으로 상정하고 10월 혁명으로 성립된 볼셰비키 정부의 현재와 전망을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은 “금후의 세계의 정신적 지배자는 아라사이다”¹⁶⁾로 시작하는 「아라사혁명기」의 첫 구절에서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라사혁명기」와 달리 『로국혁명기』는 10월 혁명¹⁷⁾ 이후 볼셰비키 정부의 전도에 대해 암울한 전망으로 끝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저자가 집필을 끝낸 시점이 볼셰비키 정부에 매우 불리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데, 실제로 『로국혁명기』 제5장의 마지막 절인 ‘최근의 과격파’는 1918년 2월 중순 독일의 공세 이후 볼셰비키 정부가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의 ‘굴욕적 강화조약’을 맺고 모스크바 천도를 결정해야 했던 1918년 3월의 시점의 일을 다루고 있다. 1917년 12월 23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볼셰비키 정부가 강화의 근본조건으로 내건 비병합·비배상 및 민족자결주의를 모두 승인할 뜻을 밝혔던 독일은 1918년 2월 10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트로츠키의 ‘脫戰宣言’을 기회로 러시아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수도 페트로그라드로 향하는 길목인 프스코브시를 점령한다. 이에 볼셰비키 정부는 이전보다 혹독한 조건으로 강화교섭에 나선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세계적 사회혁명의 근거지로 자부했던 페트로그라드를 버리고 모스크바로 천도해야 했으니, “모스크바 천도는 과격파 내리막길의 제일 계단”¹⁸⁾이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집필 시점은 1919년 후반으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강화조약 및 모스크바 천도로 볼셰비키 정부의 앞날이 위태로워보였던 1918년 3월의 시점과는 러시아 국내의 정세가 판이하게 달랐다. 우선 1918년 11월의 혁명으

16) 天才, 「아라사혁명기(一)」, 『독립신문』 36, 1920.1.10.

17) 『로국혁명기』와 역술 「아라사혁명기」는 올리우스력을 사용한 러시아력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올리우스력은 그레고리력보다 13일이 늦다. 논의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월 혁명과 10월 혁명만 제외하고 원저와 역술 텍스트의 러시아력을 따르기로 한다.

18) 布施勝治, 앞의 책, 462면.

로 독일은 전제정에서 공화국으로 거듭났고, 공화국 선포 직후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그동안 점령한 영토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물론 동년 3월 볼셰비키 정부와 맺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도 무효화되었으며, 1919년 6월 베르사유조약의 성립으로 패전국으로서 혹독한 조건의 강화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한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기점으로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고 내전으로 돌입했던 볼셰비키 정부는 이 무렵 시베리아와 러시아 남부를 근거지로 한 콜차크, 데니킨 등의 반볼셰비키 세력에 반격을 가하여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나아가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잇달아 번지는 거대한 파업과 노동운동은 세계적 사회혁명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라사혁명기」의 필자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굴욕적 강화조약’이 아니라 볼셰비키 정부가 강화교섭 당시부터 강화조건으로 제안했던 비합병·비배상 및 민족자결주의의 이행이자 파괴에서 건설로 나아가는 계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세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역자는 1918년 2월 10일 교전 정지선언 당시 “今後は 德國의 社會革命이 잇슬 쐰”이라던 레닌의 예견이 반년이 못하여 독일혁명으로 실현된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혁명이 전세계에 미칠 영향을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歐洲大戰의 唯一의 所得이 俄羅斯革命이라 하면 今後の 世界의 모든 潮流를 支配하는 者도 또한 그것이다. 一九一九年間に 各國을 風靡하는 勞働運動은 모두 勞農政府를 同情하고 쏘는 그 影響을 瞞지 아는 자 없다. 英國의 炭工 及 鐵道 大罷工, 法國의 新聞罷工, 伊太利의 社會黨 勝利, 奧太利의 赤化, 美國의 鐵道罷工, 甚至於 日本의 革命熱에 至하기까지 俄羅斯革命이 그 導火線 됨이 안이라 하지 못하겠다. 勞農政府의 「世界的 大革命」의 兆는 日一日로 激烈하여 감이 分明 하다.¹⁹⁾

물론 러시아혁명에 대한 저자와 역술자의 상이한 시각과 전망이 단순히 집필 시점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제국주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동아시아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일본과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독립을 도모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입장의 차이인데,

19) 天才, 「아라사혁명기」(一一), 『독립신문』 48, 1920.2.26.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볼셰비키와 레닌에 대한 상이한 평가이다.

『로국혁명기』의 저자가 볼셰비키와 레닌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혁명이 일국의 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스스로 혁명의 권위로 자임하는 볼셰비키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주장을 표방하여 ‘문맹·비문명’의 러시아 하층민의 지지를 공략하는 한편 ‘일반 인민의 의지’를 내걸고 완력으로 헌법의회를 유린하고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평화를 갈망한 나머지 리가 패전을 기뻐하고, 민족자결주의에 미혹되어 핀란드의 독립을 돕고, 침략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공세운동을 저지하고, 자유민권의 소리에 취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한다. 이로써 적국을 이롭게 하고 인심을 교란하여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여 무정부주의를 선동함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나아가 연합 열강에 미치는 해독이 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바 있다.”²⁰⁾ “두려워할 만한 만용정당의 수령으로서 십일월혁명(10월 혁명)의 흑막이 되고, 노동정부의 수뇌가 되며, 나아가 세계를 향해 그 독가스와 같은 과격주의를 선전하고자 하는 자, 그가 바로 러시아 근대의 결물 레닌씨이다.”²¹⁾

저자는 레닌이 철두철미한 사회주의자로서 러시아혁명을 확장하여 세계 사회혁명을 행하려는 포부가 있고, 따라서 세계의 제국주의, 자본 및 제정의 적이 되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예리하게 적시하면서 레닌의 평화이행, 토지무상취득, 노동자의 공업감독권 및 8시간 노동제,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급격한 사회혁명이 어떻게 정부 각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 각 기관은 마비되어 전장의 병졸은 독일병과 사귀고 탈주해도 가하여 제1의 평화선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지방의 백성이 지주의 저택을 약탈하고 토지를 제멋대로 분배해도 가하여 제2의 토지취득 선언도 역시 행해졌다. 노동자의 권한 확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민족의 자결은 핀란드가 먼저 실행하고 우크라이나 등이 이를 모방하고 있으며 ……”²²⁾ 반면 「아라사혁명기」에서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서술된다. “레닌氏 한번 天下를 잡아 勞農政府를 세우며, 그 가는

20) 布施勝治, 앞의 책, 370면.

21) 위의 책, 371면.

22) 위의 책, 378~379면.

곳에 모든 舊弊와 妥協은 一擊에 粉碎된다. 平和促進, 土地國有, 勞働者의 工業 監督權 及 八時間制, 民族自決 等の 宣言은 着着 實施되였다.”²³⁾ 이 모든 정책의 이행은 적폐와 타협의 분쇄이며 “社會黨中에 가장 奮鬪的인 偉人”이자 “世界 社會主義의 指導者” 레닌의 업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요컨대 『로국혁명기』의 저자 후세 가르지에게 러시아혁명이 제국주의와 자본계급에 맞서 세계적 혁명을 주도하며 당대 떠오르는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였던 일본을 안팎으로 위협하는 철저한 경제의 대상이었다면,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필자에게 그것은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약속하는 독립의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건설을 약속하는 인류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11회에 걸쳐 연재된 「아라사혁명기」는 매회 연재분마다 말미에서 사건을 미리 요약제시하거나 서두에서 앞서 다룬 사건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사건의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원고를 집필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연재분마다 내용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신문연재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가 집필한 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신문연재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라고 하면 2차 유학시절 『매일신보』에 엄청난 분량의 논설을 연재했던 이광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게다가 「아라사혁명기」에는 이 무렵 이광수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도 곳곳에 눈에 띈다.²⁴⁾ 이상 연재 집필의

23) 天才, 「아라사혁명기」(一一), 『독립신문』 48, 1920.2.26.

24) ① 十一月革命은 實로 俄國 資本主義의 全滅과 勞農專制의 成立을 意味함이니, 이로써 新時代의 紀元을 劃하였다.(「아라사혁명기」(一〇), 『독립신문』 47, 1920.2.17.)/ ‘萬歲’의 叫號와 世界의 良心에 訴함으로써 唯一한 方法을 삼은 우리 運動은 人類의 人道化에 一新紀元을 劃함이니, 實로 國際聯盟과 社會共產主義로 더불어 人類史上의 最大 事實의 一일 것이다.(「한족의 장래」, 『신한청년』 1, 1919.12) ② 然이나 革命의 洪水는 漸次로 勢를 도도아 마참내 彼等의 身邊을 侵하게 되였나니(「아라사혁명기」(五), 『독립신문』 40, 1920.1.31.) 번역 저본의 “혁명당의 기세 더욱 치열을 가하고 노병회측의 압박 점점 강해지며”라는 문장의 요약서술에 해당한다. 布施勝治, 앞의 책, 86면./ 山東問題와 前後하야 蜂起한 排日熱은 太平洋問題, 中國問題, 移民問題, 西北利問題, 韓國問題 等에 因하야 그 勢를 도도아 마참내 美日戰爭說이 다시 니러나게 되였다.(「미일전쟁」, 『독립신문』 56, 1920.3.20.) ③ 所謂 聯合國의 魚頭鬼面之卒이 巴黎 近傍에 모혀서 前에 德國이 俄國에 對하야 하던 그갖은 酷毒한 條件으로써 講和條約을 締結함은 世人 既知의 事實이다.(「아라사혁명기」(一一), 『독립신문』 48, 1920.2.26.)/ 魚頭鬼面의 小倭大倭는 如前히 我民族의 意思를 蔑視하고 恬然히 我民族을 美洲의 黑奴에 比하는도다.(「왜노와 우리」, 『독립신문』 23, 1919.10.28.)/ 反覆 無常하야 德義도 信義도 업는 原敬, 床次 等이며 貴衆 兩院의 魚頭鬼面之卒, 그

능숙함과 표현의 정형성이 ‘天才’를 이광수로 추정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IV. 사회주의혁명에 전 기대와 좌절, 그리고 선회

1921년 4월 2일 『독립신문』 101호 사설란에는 ‘天才’라는 필명과 더불어 「國民皆業」이라는 제목의 글이 발표된다. ‘天才’라는 필명으로 『독립신문』에 실린 글로는 역술 「아라사혁명기」와 사설 「독립군 승첩」 이후 마지막 글이다. 「아라사혁명기」가 한창 연재 중이던 무렵 발표된 사설 「독립군 승첩」은 민국 2년에 접어든 1920년 연초 임시정부가 전쟁의 해를 선포한 이래 길림에서 적진을 깨뜨린 독립군의 첫 승첩의 소식을 전하며 “二千의 獨立軍의 勝捷은 東亞의 大革命의 開始를 宣하는 警鐘”²⁵⁾임을 호언하고 있는 글이다. 독립군의 승첩을 동야 대혁명의 도화선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 역술 「아라사혁명기」의 논조와도 그대로 맞닿아 있다. 반면 “今日 우리가 恨歎하고 可惜히 녀이는 모든 우리의 不評과 自暴自棄와 陰謀가 다 業 업는 데서 生하는 것”²⁶⁾이라 하여 농촌과 학교, 공장과 상점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업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성공 요건임을 역설하고 있는 「국민개업」은 동일인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논조를 달리한다. 이광수의 경우 이러한 입장의 변모에 필연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논조의 급변은 ‘天才’를 이광수로 추정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된다.

「국민개업」의 서두는 “우리가 이 말을 드른 지 오래입니다. 드를수록 그 뜻은 더욱 기퍼가고 그 眞正한 價値는 더욱 나타나는 듯합니다”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필자 ‘天才’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개업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 바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이광수는 『독립신문』 창간호부터 18회에 걸쳐 연재한 논설 「개조」(1919.8.21.~10.28)에서 내실 있는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물론 독립국민 된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민족 자체의 개조가 근본이 됨을 역설한 바 있다. 이광수의 사상에서 준비론은 1914년의 대륙방랑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²⁷⁾ 논설 「개

卑劣하고 淺薄하고 철 업고 宗的 업는 狂吠亂吠(「장덕수군」, 『독립신문』 45, 1920.2.12.).

25) 天才, 「독립군 승첩」, 『독립신문』 47, 1920.2.17.

26) 天才, 「국민개업」, 『독립신문』 101, 1921.2.

조」 가운데 5회에 걸쳐 연재한 ‘십년생취 십년교훈’에서도 吳王 夫差에게 전패하여 절치부심했던 越王 勾踐의 와신상담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광복사업은 물론 건국사업에도 그 사업에 필요한 실력의 준비가 있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무렵은 앞서 보아온 대로 이광수가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몰고 올 세계질서의 변동을 예의주시하며 세계적 사회혁명에서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국제연맹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질서 변동의 진원지로 떠오른 러시아의 사회혁명에 주목하고 있던 이광수는 임시정부가 전쟁의 해를 선포한 1920년을 계기로 「세계적 사명을 受한 我族의 전도는 광명이니라」(2.12), 「일본의 현세」(3.11~4.1), 「미일전쟁」(3.20), 「세계대전이 오리라」(3.23), 「독립전쟁의 시기」(4.1), 「한중제후의 要」(4.17), 「해삼위사건」(4.20) 등 독립전쟁의 기회를 모색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써냈다.²⁸⁾ 이 가운데서 특히 5회에 걸쳐 연재된 논설 「일본의 현세」²⁹⁾는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일본의 혁명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미국은 물론 극동의 일본에까지 그 여파를 미치고 있는 러시아혁명의 위세와 더불어 세계적 사회혁명을 전망하고 있는 「아라사혁명기」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글이다. 소수의 군벌과 관료 재벌 지배하의 전제정치와 침략의 야심을 고수하는 현존의 일본국가는 안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사상을 접하고 구제도를 타파하고 새 국가를 건설하자는 사상에 눈뜬 대다수 인민에게서 고립되어 있으며, 밖으로도 그간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 및 호주와도 충돌하고 있어 혁명 혹은 파멸의 날이 머지않다는 것이 그 핵심 논지이다. 이광수가 독립전쟁을 다만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天의 命畀’이자 새로운 세계질서를 희구하는 ‘世界的 精神’을 선취한 신성한 과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27) 대륙방랑시절 이광수의 준비론 사상에 관해서는 최주한, 「중학시절과 오산시절 전후의 이광수」,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58~63면 참조.

28) 일본 국내의 정세의 격동과 일본의 혁명 혹은 파멸의 시나리오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최주한, 「상하이시절의 이광수와 일본」, 『춘원연구학보』 23, 춘원연구학회, 2022, 80~86면 참조.

29) 이광수는 시사단평 「獨立的 資格」(1920.2.12.)에서 “韓族에게는 激勵의 鞭撻이 되려니와, 日本의 現勢는 如何, 貴衆 爾院의 醜態는 如何, 그 外交는 如何, 日本內의 統治는 如何, 統治하지 못할 남을 統治한다고 無益한 爭論으로 歲月을 虛費하기 前에 먼저 日本 自身の 統治나 生 각함이 如何”라 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성공을 자신하며 한족에게 독립의 자격이 없음을 운운한 식민정책학자 니토베 이나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 글은 그 연속선상에서 쓰였다.

革命은 이제 天의 命令이요 世界的 精神이라. 日本을 革命케 할 者는 이 世界的 精神이니, 英國人이나 美國人이나, 新思想 新理想을 懷抱한 者와 特히 俄國人和 中國人은 모다 日本의 革命에 參與하고 贊成할 者라. 그러나 이 世界的 大 精神을 代表하여 日本에게 熱血의 洗禮를 授할 者는 實로 우리 大韓民族이니, 그럼으로 우리의 血戰은 다만 우리의 當然하고 神聖한 獨立의 完成만 爲함일뿐더러 實로 日本을 爲하고 世界를 爲하여 하는 神聖한 天의 明命이라.³⁰⁾

「아라사혁명기」에서 러시아혁명이 민족자결주의가 약속하는 독립의 가능성이자 새로운 세계질서의 건설을 약속하는 인류 구원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이광수에게 조선의 독립전쟁은 러시아혁명과 나란히 혁명이라는 세계적 정신에 부응하는 세계혁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독립전쟁을 치르는 조선은 세계에 원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세계가 조선의 청구에 응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광수는 이러한 시운이 이미 독립선언서에 표명되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吾等이 茲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併進하는도다. …… 千百世 祖靈이 吾等を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を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만 驀進할 따름인더.”³¹⁾ 적어도 이 무렵까지만 해도 독립선언서의 당당한 공언이 실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반년 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을 지지하며 세계적 사회혁명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이광수의 기대는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20년 10월의 간도 참변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1918년 8월, 일찍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과 함께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하여 러시아 내전에 개입했던 일본은 철수하지 않고 남겨둔 이들 병력과 더불어 간도출병에 나서 독립군 및 독립군 근거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뿐만 아니라 6월의 봉오동전투에 이어 10월의 청산리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한 데 대한 보복적 대응으로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2개월간 약 3천4백69명을 학살하고 3천2백9호의 주택을 방화하여 파괴하는 참변을 일으켰다. 이해 4월 일본군의 습격으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항일운동세력의 근거지가 파괴된 데 이어 이번에는 만주 독립군의 근거지마저 초토화된 형국이었으니, 이로써 1920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구상은 그대로 좌초되고 만 셈이었다.³²⁾ 4월 참변

30) 「세계적 사명을受한 我族의 전도는 광명이니라」, 『독립신문』 45, 1920.2.12.

31) 상동.

때까지만 해도 “吾人의 가장 기다리는 바로 一時 日軍의 暴威가 極東을 더품은 將次을 大破裂의 前提라 할지니, 吾人의 運動에 絶好한 機會는 漸漸 각가와진다”³³⁾고 하여 애써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던 이광수도 독립운동의 방침에 대하여 다시금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18일자 『독립신문』 속간호 87호부터 6회에 걸쳐 연재한 논설 「간도참변과 독립운동 장래의 방침」(1920.12.18.~1921.2.5.)은 간도참변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의 원인을 실력의 부재에서 찾고, 남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의 모집’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역량을 갖추자는 취지의 대독립당 건설을 제안한 글이다. 독립전쟁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짓는 일에서 눈을 돌려 금전과 군사의 획득, 산업과 교육을 근간으로 한 민력의 함양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준비가 긴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인데, 상하이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편력에서 보자면 준비론으로의 회귀에 가깝다. 요컨대 독립전쟁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을 때 이광수가 기댄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준비가 아니라 대독립당의 건설이라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의 준비였다. 레닌의 볼셰비즘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그랬듯 독립에 유리한 기회와 형세를 제공하는 외적 여건의 하나였을 뿐, 이광수가 사회주의 혁명 자체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상하이시절의 이광수에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대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립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2월 중순 귀국을 결심했던 이광수는 이후 ‘滬上一人’³⁴⁾이라는 필명으로 「우리 靑年의 갈어둔 利한 칼을 어대서부터 試驗하여 볼가」(1921.3.19)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한 편 더 썼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을 지지하며 김여제, 주요한과 함께 썼던 「독립군가」의 1절에도 사설의 제목과 유사한 ‘갈앗던 날낸 칼을 試驗할 날이’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나아가세 獨立軍아 어서 나가세/ 기다리던 獨立戰爭 도라왔네/ 이때를 기다리고 十年 동안에/ 갈앗던 날낸 칼을 試驗할 날이/ 나아가세 大韓民國 獨立軍士아/ 自由獨立光復할 날 오늘이로다/ 正義의 太極旗발 날리는 곳에/ 敵의 軍勢

32) 간도참변을 기점으로 1920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 구상이 좌초되는 경위에 관해서는 신주백,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2019 참조.

33) 「해삼위사건」, 『독립신문』 67, 1920.4.20.

34) 1914년 12월과 이듬해 1월 『청춘』 3,4호에 발표한 「上海서」는 ‘滬上夢人’이라는 필명을 썼다.

落葉갓히 슬어지리라”³⁵⁾ 여기서 갈아둔 날랜 칼의 시험 대상이 일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미 준비론으로 돌아선 이광수가 지목하는 갈아둔 날랜 칼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아니다. “十年前 그날을 두게 한 者が 곳 우리인즉 그보다 더 못한 다른 날을 두게 할 것도 外에 잇지 안코 內에 잇나니, 이런 싸움으로 네 칼을 外에서 試驗하기 전에 內에서부터 할 거시며, 他에게 及키 前에 自己에게서부터 함이 必要타 하노라.”³⁶⁾ 내부의 온갖 악습이 우리를 망케 했고 앞으로 망케 할 자이므로 우선 우리 자신의 병근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애국은 입과 종이로만 하는 줄 알고 애국은 암살과 탄환으로만 하는 줄 아는 착오된 민족적 양심, 그리고 나타와 겁유와 허위와 허영과 기타 악습관의 노예가 되어 마비된 민족적 양심을 꾸짖으며 각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업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성공 요건임을 역설하고 있는 「국민개업」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쓰인 글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어휘나 문체는 물론 그 논조에 있어서도 「민족개조론」(1921.11 집필)을 예고하고 있는 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국민개업」을 마지막으로 『독립신문』에 ‘天才’라는 필명의 글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³⁷⁾

투고일: 2023.04.14

심사일: 2023.05.15

게재확정일: 2023.06.20

35) 「독립군가」, 『독립신문』 47, 1920.2.17. 김여제의 회고에 따르면, 1절과 2절은 이광수, 3절은 김여제, 4절과 5절은 주요한이 썼다고 한다. 김여제, 「『독립신문』 시절」, 『신동아』, 1967.7.

36) 滬上一人, 「우리 靑年の 갈아둔 利한 칼을 어대서부터 試驗하여 볼가」, 『독립신문』 99, 1921.3.19.

37) 天才, 「國民皆業」, 『獨立新聞』 101, 1921.4.2. 87호부터 속간된 『독립신문』은 매주 1회 발행되었다. 99호 사설란에는 앞서 언급한 이광수의 기고문이, 100호 사설란에는 후임자의 백주년 기념사가 실렸다. 이 사설이 이광수가 귀국한 이후의 시점에 실린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독립신문』, 『신한청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7 한일관계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布施勝治, 『露國革命記』, 文雅堂, 1918

실라 피츠페트릭 저, 고광렬 역, 『러시아혁명 1917~1938』, 사계절, 2017

올랜도 파이지스 저, 조준래 역,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어크로스, 2017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김미지, 「접경의 도시 상해와 ‘상하이 네트워크’-주요한의 ‘이동’의 궤적과 글쓰기 편력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김현주·카게모토 츠요시, 「초창기 사회주의 지식인의 러시아혁명 인식-김명식의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1921)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201,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22

박상철, 「레닌의 혁명사상과 민족자결주의: 제1차 세계대전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77, 호남사학회, 2020

신주백,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2019

장성규, 「1920년 ‘훈춘사건’과 일본군의 ‘간도출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최은혜, 「민족과 혁명: 1920년대 초 사회주의 수용에서 러시아혁명 인식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77, 민족문화사학회, 2021

최주한, 「『독립신문』 소재 이광수 논설의 재검토」, 『민족문화사연구』 69, 민족문화사학회, 2019
_____, 「상하이시절의 이광수와 일본」, 『춘원연구학보』 23, 춘원연구학회, 2022

황동하, 「일제 식민지시대(1920년~1937년) 지식인에 비친 러시아혁명: 대중적으로 유통된 합법잡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102, 한국서양사학회, 2009

Lee Kwang-su in the time of Shanghai and Socialism

— Focusing on “俄羅斯革命記”(1920)

Choi, Ju-han

“俄羅斯革命記” of ‘天才’ published serially in Independence Newspaper in the early 1920s is Korea’s first introduction to the Russian Revolution, based on Fuse Katsuji’s 露國革命記(1918).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background of “俄羅斯革命記” in the context of the practical interests of realm of ideas in the Shanghai, which sought the direc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le estimating the direction of world reform at the time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Fuse Katsuji’s 露國革命記, I focused on revealing the independent critical mind of “俄羅斯革命記”. For Fuse Katsuji, the Russian Revolution led a global revolution against imperialism and the capitalist class, and was a object of thorough vigilance threatening Japan, one of the emerging imperialist powers at the time, from inside and outside. On the other hand, to the writer of the “俄羅斯革命記”, it was accepted not only as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promised by Lenin’s national self-determinationism, but also as the gospel of human salvation that promised to destroy the old order and build a new world order. In addition, this article is estimates that ‘天才’ is Lee Kwang-su, based on the continuity of the argument before and after “俄羅斯革命記” in Lee Kwang-su’s writing activities in Shanghai, the skill of serial writing and the formality of expression, and the sudden change in tone seen in the same writer’s writings.

Key Words : Lee Kwang-su in the time of Shanghai, Socialism, The Russian Revolution, “俄羅斯革命記”, 露國革命記, ‘天才’

